



식민지 초기 조선의 위생풍속에 대한 식민권력의 이중성 - 미신담론을 중심으로

The duality of colonial power over the sanitary customs of Korea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 Focusing on superstitious discourse

저자 (Authors)	황익구 Hwang Ikkoo
출처 (Source)	일본문화연구 75 , 2020.7, 73-97 (25 pages) Japanese Cultural Studies 75 , 2020.7, 73-97 (25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아시아일본학회 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70002
APA Style	황익구 (2020). 식민지 초기 조선의 위생풍속에 대한 식민권력의 이중성 - 미신담론을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75, 73-9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0/08/04 09:1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식민지 초기 조선의 위생풍속에 대한 식민권력의 이중성*

— 미신담론을 중심으로 —

황 익구

<국문초록>

식민지 초기 조선의 위생풍속에 대한 조사는 빈번하게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담론도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특히 미신에 관한 담론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데 유용한 소재로 활용되었으며,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와 위생화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라는 국가권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미신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단속과 처벌을 중대한 직무과제로 삼았다. 또 위생풍속조사에서는 조선의 위생풍습과 민간치료를 미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계와 감시, 통제와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교육을 통한 미신타파가 강조되는 가운데 교과서에서는 조선인의 어리석음과 미개함을 미신의 폐해와 결부시켜 학교 교육의 교재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식민통치 권력의 기관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발산하고 선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였다. 그러나 문명과 과학, 위생과 근대를 지향하는 식민통치 권력이 실상은 미개와 주술, 미신과 전근대를 상호의존적인 관점에서 수용하는 자기모순도 노정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식민지 조선, 식민권력, 위생풍속, 미신, 담론

목 차

서론

제1장 위생경찰과 미신 담론

제2장 위생풍속 조사와 미신 담론

제3장 교과서 속의 미신 담론

제4장 식민통치 권력의 잡지 속 미신 담론

결론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8068518).

서론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를 전제로 강제병합 이전부터 조선의 제도와 법률, 관습과 풍속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1906년에는 부동산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부동산법조사회를 통해 조선의 제도와 관습을 조사하였으며, 1908년에는 부동산법을 비롯한 민법, 상법, 형법 등의 제정을 위해 법전조사국에서도 조선의 관습과 제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강제병합 이후에는 조선의 제도와 관습은 물론 역사와 풍속, 언어와 종교, 생활과 문화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강제병합 이후에 이루어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조사는 식민지 지배의 용이와 통치정책의 입안, 각종 제도의 정비와 실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만큼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으며, 조사 빈도의 증가는 물론 관련 내용에 대한 담론의 형성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 위생업무와 관련한 조사와 담론을 들 수 있다.

강제병합 직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위생업무의 관리와 통제를 위해 조선총독부 내에 내무부 지방국 위생과와 경무총감부 위생과라는 두 개의 담당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정도로 조선의 위생업무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였다. 내무부 지방국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 약사·약제사·산과 및 간호부의 업무, 병원 및 위생회, 두묘, 병원(病源) 검색 및 분석검사, 기타 위생시험 등과 같은 조선 전역에 대한 위생지침이나 정책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경무총감부 위생과에서는 상수 및 하수의 취체, 음식물·음식기구 및 약품 취체, 오물 소제, 묘지 및 매화장, 약사·약제사·산과·간호부의 업무 취체, 약종상·제약자·입치·침구 영업, 아편연의 흡용, 모르핀 주사 금알(禁遏), 행려병인 및 사망인, 정신병자, 도축, 검징(檢徵), 기타 공중위생의 취체(이상 보건계), 전염병 및 지방병, 종두, 도축 위생(이상 방역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단속의 성격이 강한 실질적인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 1910.10.1) 물론 이와 같은 위생과 업무의 이원적 체제는 1912년 4월부터 시행된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중개정(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事務分掌規程中改正)’으로 위생 관련 업무는 경무총감부 위생과로 통합되었지만 위생업무에 대한 관리를 원활하게 함과 동시

에 통제의 효율성도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事務分掌規程中改正〕 1912.3.28)

위생업무와 관련한 체제의 정비와 함께 관련 분야에 대한 각종 조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1910년 10월에 설립된 조선총독부 취조국(取調局)에서는 구(舊) 제도 및 관습의 조사 필요성에 발맞추어 조사 항목과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 및 관습, 상민(常民)의 생활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며, 1912년 4월부터는 취조국의 업무를 승계한 참사관실에서 구관조사(舊慣調査)를 진행하였다. 그 후 구관 및 제도 조사는 1915년 4월에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면서 중추원 업무로 편입되었다. 중추원에서는 조선의 구관 및 제도는 물론 의식주, 출생, 관혼상제, 직업, 종교, 미신, 오락, 유희, 연중행사, 의약 등에 이르기까지 조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는 각 도의 경무청 위생경찰 및 행정 관리와 함께 조선인의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생활과 위생풍습, 질병의식과 의료관습, 민간신앙과 생애 주기 등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는 조선 전역에 대한 의료관습과 위생풍습을 다룬 『조선위생풍습록(朝鮮衛生風習錄)』이라는 관찰조사보고서로 편찬되었다.(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1915.10)

그 외에도 1912년부터 2년간 조선의 북부지방에 파견된 제8사단군의부는 소속 군의들이 주둔 지역에 대한 위생상태와 의료문제 등을 조사한 보고서 『조선인의 의식주 및 그 외의 위생(朝鮮人ノ衣食住及其ノ他ノ衛生)』을 편찬하였으며(第8師團軍醫部編纂 1915), 이 조사보고서는 조선총독부 내부국 촉탁인 무라카미 다다요시(村上唯吉)에 의해 『조선인의 의식주(朝鮮人の衣食住)』라는 제목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村上唯吉 1916)

또 이보다 앞서 경찰 출신의 조선총독부 촉탁 이마무라 도모(今村鞆)도 조선의 다양한 풍속과 관혼상제, 종교와 미신, 질병과 위생 등을 조사하고 기록한 『조선풍속집(朝鮮風俗集)』을 간행하여 조선풍속 입문서로서의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今村鞆 1914)

이와 같이 조선의 풍속과 위생에 관련한 조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담론도 많이 등장하였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위생업무에 관한 체제의 정비와 동시에 기관지 『매일신보(每日申報)』를 통해 조선의 열악한 위생과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론을 생산하며 조선에 대한 위생행정의 당위성을 강

조하였다.

조선인은 원래로 위생에 주의치 아니하는 습관을 이미 만들었으니 질병 요족(疾病夭促)은 환난(患難)이 천지(荐至)함을 불원하여 거처의 불결도 상관하지 않고 음용수의 탁하고 불결함도 상관하지 않아 태만한 습성으로 인하여 고질이 되어 인구의 임총(林葱)치 못한 것도 이에서 비롯된지라 (『每日申報』 1910.10.7.)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인은 태생적으로 비위생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불결함도 상관하지 않는 태만한 민족이라는 민족차별적인 담론과 함께 일본인과의 암묵적인 비교를 통해 자신들의 민족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양상이 총독부의 기관지를 통해 발신되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위생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발상으로 조선인의 비위생과 불결함이 개인의 가치 훼손은 물론 국가의 가치증진을 방해한다는 논리도 제시하고 있다.

불탄(不彈)한 관(冠)을 쓰고, 씻지 않은 옷을 입어 흐트러진 머리털이 엽렵(獵獵)에 먼지와 때가 얼굴에 가득하면, 그 사람이 비록 70, 80세에 이르고, 백천(百千)권 서사(書史)를 읽었을지라도 나는 사람의 가치가 있다 말하기 어렵도다. (중략) 오호라 아일신(我一身)의 청결로 일국(一國)의 가치를 증중(增重)하거늘 어찌 불청불결(不清不潔)에 함(陷)하여 자기 일신의 가치까지 잃으리오.(『每日申報』 1911.1.8.)

위의 인용은 조선인의 외모를 ‘불청불결(不清不潔)’한 것으로 규정하고 오랜 경험과 독서로 상징되는 교양과 학식의 전통적 가치보다 청결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청결이라는 준거로 조선인의 인간적인 가치조차 무시하는 담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같은 담론은 청결의 가치와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인을 불결과 비위생의 전형으로 전제하려는 인식을 노정하고 있다. 결국 문명국의 위생 논리로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사회의 비위생적인 요소를 비판하고 소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일신하려는 문명론적 위생관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무시와 비위생의 지적으로 근대적 교화와 계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더 나아가 문명적 열등감을 조장하고 민족적 차별

을 합리화하며 결국에는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리와 연동하는 장치로서 기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은 교화와 개선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문명적으로 열악하고 열등한 민족으로 치부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 총독부가 행하는 의료기술과 위생행정은 식민지 ‘신민’을 위한 식민권력의 시혜적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¹⁾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이 위생풍속과 관련한 조사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동시에 그에 대한 담론이 다양하게 생산되는 과정에서 거의 빠짐없이 다루어지는 소재가 조선의 미신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1910년 대한제국정부내부·경무총감부의 촉탁으로 구관조사를 시행한 야마미치 조이치(山道襄一)는 당시의 조선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유교가 감화(感化)를 미치는 점은 일반 인민의 의례에 관계하는 형식상의 일뿐이다. 인심(人心)을 지배하는 것은 유교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고, 실로 미신이 아닐 수 없다. (중략) 그래서 위로는 왕실에서 아래로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신앙이라 할만한 것이 있다면 정말 미신을 빼고는 달리 말할만한 것이 없다. (중략) 조선반도와 같은 곳은 혹은 정치, 혹은 종교, 혹은 사고 등 모든 것이 미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山道襄一 1911:263)

야마미치는 당시의 조선 사회를 신분, 정치,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미신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미 미신이라는 용어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구관·구습으로 간주 되어 개선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던 상황에서 조선 사회 전체를 미신이 지배하는 미개한 사회로 낙인찍는 담론이 아닐 수 없다.

미신 담론은 문명, 과학, 위생, 합리성, 근대를 지향하는 식민지 지배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 미개, 비과학, 비위생, 비합리, 전근대 등의 산실과도 같은 사안으로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와 위생화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아울러 식민지 조선의 열등감 조장은 물론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도 부각시키는데 유효하게 활용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초기 조선의 미신을 둘러싼 조사와 담

1)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는 박윤재(2002:1-255), 이종찬(2006:72-78), 권기하(2011:1-70) 등을 참조한다.

론은 식민권력의 조선 인식은 물론 조선 사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양상을 고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²⁾

이 논문에서는 식민지 초기 조선의 미신에 대한 식민권력의 관리와 통제,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동시대 일본의 조선 인식을 고찰함과 동시에 미개와 문명, 과학과 주술, 전근대와 근대 등의 충돌에 의한 단절과 연속의 문제를 지적하고 식민지 지배 권력의 통제와 통치정책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 대상과 범위는 식민지 초기에 식민권력의 통치시스템 구축과 정비과정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미신 담론에 한정하며, 그중에서도 질병이나 공중위생과 관련한 미신 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사종교와 관련한 미신 개념에 대해서는 관련 주제를 벗어나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고찰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식민권력의 통치 및 대응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선의 내재적 요구 혹은 자발적 동기에 의한 미신타파와 관련한 담론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장 위생경찰과 미신 담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강제병합 이후 경무총감부 위생과는 위생업무를 총괄하는 조선총독부 직속기관으로서 경시와 경부로 구성된 경찰조직이었다. 즉

2) 식민지 조선의 미신을 둘러싼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방원(2006: 281-314)은 ‘일제의 ‘미신타파’정책이 식민통치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결국 일제의 목적은 일관되게 한국인을 ‘일제에 순종하는 바랍직한 식민지민’으로 개조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미신과 식민통치정책과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하는 이 논문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미야우치 사키(宮内彩希, 2012:1-19)는 조선 개화기에 미신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한일강제병합 이후에 조선의 내적동기에 의한 미신타파운동과 일제의 미신에 대한 통제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야우치는 일제의 통제정책은 미신의 박멸이 목적이 아니라 위생문제, 토지정리, 치안유지 등의 문제로서 법제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전개된 반면에 조선사회 내부에서 전개된 미신타파운동은 일제 당국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미신에 대한 심리적 측면을 계몽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식민지 경찰의 기관지인 『경무회보(警務彙報)』에 실린 미신 관련 기사를 통해 식민지 위생경찰의 미신타파정책과 통제 활동의 양상을 고찰한 이충호(2014:303-330)는 미신연구에 있어서 담론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식민통치정책과 미신타파의 관계를 규명하는데는 유효하지만 식민권력이 조선인의 일상 속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였으며, 식민권력에 내재된 자기모순과 이중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

경찰조직이 위생 관련 사무의 지휘와 집행을 모두 담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경찰조직은 1915년 3월부터 각 도의 위생경찰사무와 위생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체계를 형성하면서 경찰 중심의 위생행정을 공고히 구축하였다. 말하자면 식민지 위생경찰체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위생업무는 통제와 단속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라는 명분과 함께 경찰력은 더욱 강력하게 행사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정근식 2011:221-270)

일본 통감부 고문경찰에 의해 도입된 위생경찰은 일본에서는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병적 위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강제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山口謙二郎 1901:5) 즉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하는 국가의 방제 수단이 위생경찰이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위생경찰에 대한 개념은 조선에서도 유효하게 활용되었다. 조선총독부 경부 시라이시 야스나리(白石保成)는 1912년 6월에 경찰을 대상으로 한 위생강습회에서 위생경찰의 개념을 ‘공중위생상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는 국가의 권력작용’으로 규정하였다.(白石保成 1913:85) 위생경찰을 위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국가권력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개념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위생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전하는 일련의 작용으로 생활과 풍속, 제도와 관습, 종교와 미신 등의 제반 영역과 관련된다는 점이다.³⁾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미신에 관한 업무는 경찰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 일찍부터 통제와 단속, 타과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마쓰이 시게루(松井茂)가 경무국장으로 있던 1910년 3월에 한국내부경무국은 한국경찰의 현황과 역할, 조사와 회의자료, 자문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편찬한 『한국경찰일반(韓國警

3) 일제강점기 경찰의 활동과 역할을 고찰한 장신(2004:562)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근대 일본의 경찰은 국가권력이 추진하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강제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당시는 이른바 <문명개화>의 시기로 경찰에게는 풍속, 위생의 개량과 습관의 교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일상생활의 세세한 곳까지 권력의 규제가 미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한 경찰은 문명화된 풍속, 생활 등을 일반 민중의 내부에 강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문명화가 사회에서 구현되는 논리인 합리주의는 전통이나 인습, 미신이나 주술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사고에 기반하여, 그것의 구속으로부터 탈각하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 경찰의 역할과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大日方純夫(1992:184)도 참조한다.

察一斑』에서 경찰의 업무 중에 하나로 미신에 대한 단속과 통제, 그리고 교육을 통한 미신의 타파를 강조한 바 있다.(한국내부경무국 1910:232-243) 또 한일강제 병합 이후에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는 헌병경찰제도를 통해 조선인의 생활습관의 지배와 의식의 통제를 기도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1912년 3월 25일에 총 85개 항목의 ‘경찰범처벌규칙(警察犯処罰規則)’을 제정하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였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미신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미신과 관련된 항목으로 ‘22. 무분별하게 길흉화복을 말하거나 기도, 주문 등을 하거나 부적류를 수여하여 사람을 미혹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 23. 병자에게 금염, 기도, 주문 또는 정신요법 등을 행하거나 부적, 神水 등을 주어 의료를 방해하는 자, 24. 함부로 최면술을 행하는 자’를 제시하고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조선총독부령 제40호, 1912.3.25.) 이외에도 ‘32.경찰관서에서 특별히 지시 또는 명령한 사항에 위반하는 자’의 항목을 통해 규정된 항목 이외의 미신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 당시의 경찰이 미신과 관련한 문제를 범죄로 분류하고 처벌한 사례는 다수 확인된다.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조선경찰협회(朝鮮警察協會)에서 발행한 월간지 『경무회보(警務彙報)』는 「조선의 미신범죄(朝鮮における迷信犯罪)」라는 제목으로 미신과 관련한 범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판례를 소개하는 연재 기사를 실기도 하였다.⁴⁾ 이 기사에는 조선의 미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에서 미신범죄는 아주 다양한 형태가 유래하고 있으며, 또한 아주 악질적인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조선의 민도가 아직 유치하고, 신앙심의 기초를 이루는 종교적 감정성(感情性)이 천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초목금수(草木禽獸) 등에 대한 숭배와 유교적 감화에 의해 자연을 추상화 하고 귀신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욕구하는 소망을 쉽게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곧 바로 황당무계한 미신의 길에 빠져서 실로 종교상의 위안을 얻을 수 없게 된다.(『警務彙報』 1920.4:35)

4) 『경무회보(警務彙報)』는 1910년 7월에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조선경찰협회(朝鮮警察協會)가 『경무월보(警務月報)』라는 이름으로 발행한 월간지로 1913년 1월 제40호부터 『경무회보(警務彙報)』로 이름을 바꾸어 발행되었다. 조선의 미신범죄에 관한 기사는 1920년 4월에 발행된 179호부터 183호까지 연재되었다.

이 기사는 조선에서 미신범죄가 많은 이유를 조선의 민도가 유치하고, 종교적 신앙심이 천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당시 경찰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조선 인식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은 세계에서 유명한 미신의 나라, 유언비어의 향토라고 알려져 있다. 옛 한국시대에 조선인의 생활은 거의 미신의 축도(縮圖)였다. 위로는 왕후 귀족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담군(百姓担軍)의 천민에 이르기까지 미신에 현혹되어 있다. 음사사교(淫祠邪教)는 당당히 권세를 휘두르고 시대를 풍비하며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警務局池内生 1925.5:61-62)

여기에서도 경찰은 조선을 ‘미신의 나라’, 조선인의 생활을 ‘미신의 축도’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미신의 타파가 시급하고 중대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이라는 국가권력은 국민의 건강을 보전한다는 명분 하에 조선의 제도와 역사, 풍속과 생활을 부정하고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더 나아가 조선인의 의식과 정신에 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교화를 중대한 과제로 삼으며 식민지 지배의 당위성과 정당성도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이다.⁵⁾

제2장 위생풍속 조사와 미신 담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강제병합 이후 조선의 위생풍속에 대한 조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미신과 관련한 위생풍속의 조사에는 이마무라 도모(이하 이마무라) 『조선풍속집』과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조선위생풍속록』이 대표적이다.⁶⁾

5) 이외에도 『경무회보』에는 각 지방경찰부가 질병이나 위생에 관한 미신을 조사하여 수록한 기사도 다수 확인된다. 예를 들면 전남경찰부가 조사하고 작성한 「질병과 미신(疾病と迷信)」이라는 기사는 『경무회보』 195호(1921.8)부터 198호까지의 연재되었으며, 경기도경찰부가 조사한 내용은 「적리(赤痢)와 미신(赤痢と迷信)」이라는 제목으로 『경무회보』 210호에 수록되었다.

6) 이외에도 植木末実 『朝鮮の迷信と俗伝』(新文社, 1913)도 미신과 관련한 조선의 위생풍속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序」는 이마무라가 작성한 것으로 속전과 미신 연구를 통해 그 국민의 윤리관, 종교신념, 사회사상 등과 같은 국민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먼저 이마무라 『조선풍속집』의 미신 담론에 대해 살펴보자. 대만총독부에서 순사로 근무한 이마무라는 1908년 조선 통감부 경찰로서 조선으로 건너와 충청북도 경찰부장을 비롯하여 강원도 경찰부장, 내부순시관, 통감부 및 총독부 경시, 경성남부 경찰서장 겸 경무총감부 위생과장심득, 평양 경찰서장, 제주도사 겸 경찰서장 겸 검사사무취급, 원산부윤, 이왕직사무관(궁내관)과 서무과장, 고등관 이등 등 경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경찰 간부 출신의 조선풍속 전문가였다.(주영하·임경택·남근우 2017:66-67) 『조선풍속집』은 이마무라가 경찰 직무 수행은 물론 총독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의 촉탁으로 근무하면서 진행한 조선풍속 조사자료나 강연 자료가 바탕이 되어 간행되었다.⁷⁾ 이마무라는 조선풍속을 조사한 계기에 대해 ‘직무의 집행이 민도(民度)와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조선의 풍속 습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며, ‘직무와 관계가 깊은 것, 혹은 내가 취미를 느끼는 사항을 단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여 발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今村 鞞 1914) 즉 이마무라는 조선의 풍속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이 자신의 경찰로서의 직무, 다시 말해서 식민통치를 위한 효용성과 용이성이 관여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점은 『조선풍속집』이 조선 사회에 대한 단순한 개인적 관심과 흥미, 나아가 이해를 위한 목적보다도 식민지정책에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풍속집』에서 미신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살펴보자.

『조선풍속집』은 「조선인의 미풍」을 시작으로 총 32개의 목차, 약 52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 미신에 관한 내용은 목차 「24. 조선인의 미신 및 종교」부터 「25. 묘지에 관한 미신 및 폐해」, 「26. 조선인의 몽점(夢占)에 대하여」, 「27. 조선인의 소인요병금염(素人療病禁厭) 및 미신」, 「28. 조선의 속전(俗伝)」, 「29. 호랑이에 관한 미신 속전」, 「30. 조선의 미신업자」까지로 약 150여 페이지를 할애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이마무라는 ‘미신은 미개시대의 유물’로서 미신을 민족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그 민족의 풍상심리(風尚心理)를

7) 당시에 『조선풍속집』은 조선풍속 입문서로서 평가를 받았으며, 「조선의 관청 수험자가 반드시 지녀야 하는 책(朝鮮諸官庁受験者必携)」으로 선진되었다.(주영하·임경택·남근우(2017:68-71) 참조, 원문은 秋葉隆(『鄂博と城隍』(『書物同好会会報(今村鞞先生古稀祝賀記念特輯)』第九号, 書物同好会, 1940, p.2), 横山将三郎(『白川温泉で朝鮮の話を聞く』(『書物同好会会報(今村鞞先生古稀祝賀記念特輯)』第九号, 書物同好会, 1940, p.26), 今村鞞(1919:광고) 참조)

살펴보고 여러 가지 일에 참고로 삼는데 이익이 많은 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今村鞆 1914:310) 즉 이마무라는 미신을 문명의 상대적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며 조선의 미신을 통해 조선인의 풍속과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신이 '역사, 종교, 철학, 그 외 각종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의 종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종교가 미신으로 성행한다-현재에도 불교 본래의 신앙은 가
까스로 남아 있을 뿐이고 미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불교 신앙 및 미
신적 유물은 민간의 연중행사로 변화되거나 건축 의식이나 제의 등에 예
전의 면영(面影)이 남아 있고, 현재까지 미신 그대로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도 매우 많다.(今村鞆 1914:327)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마무라는 조선의 종교가 미신의 영향 하에 있으며 또한 미신으로 성행한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의 종교를 폄훼하고 부정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시각은 조선인의 풍속과 심상에 대한 무시와 부정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마무라는 「27. 조선인의 소인요병금염(素人療病禁厭) 및 미신」에서 조선의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치료행위는 '수준이 매우 낮으며', '황당무계하여 의술에 하등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합리적인 것도 아주 많으며', '조선인의 의약, 질병에 대한 감상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일정 부분 그 효용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의 미신에 대한 이마무라의 기본적인 인식은 교화와 단속, 관리와 통제라는 식민통치 권력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모두 그 직업은 다르지만 어느 것도 황당무계한 설을 가지고 인심(人心)의 약점에 편승하여 우매한 국민을 현혹되게 하며, 사회에 해독(害毒)을 유포하는 것은 동일하다. (중략) 최근 사회의 풍조에 맞추어 일반에게 미신을 벗어나게 한다고 한다. 한편 단속을 엄중하게 함으로써 이들 미신업자는 현저하게 위축되 하야 과거로 되돌아가는 세력은 없으며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今村鞆 1914:458-459)

이마무라는 「30. 조선의 미신업자」에서 ‘황당무계’한 이유로 ‘국민을 현혹되게 하고 사회에 해독을 유포하는’ 주요 미신업자로 지사(地師, 혹은 지관), 무당, 점쟁이, 점술가 등을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통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마무라는 조선의 미신은 타파의 대상이며, 식민통치라고 하는 신정(新政)을 통한 계몽과 교화를 하지 않으면 조선은 전근대성과 원시성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조선위생풍습록』이 발신하는 미신담론을 살펴보자. 『조선위생풍습록』은 전국 13개 도의 각 경무청 위생과에서 조사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격언편」, 「속언편」, 「민간치료편」, 「미신요법편」, 「관행편」, 「부록 일반풍습편」으로 구분하여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위생풍습 조사보고서이다.(한지원 2013)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는 이 조사보고서의 편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 각지의 속언·관습 중에서 위생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진리를 깊이 탐구하여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차츰 비루한 풍속을 교화함으로써 새롭게 공통 보편의 미속(美俗)을 익히도록 하고자 이 위생풍습록을 편찬하게 되었다. (중략) 그 속언으로 수집한 것 중에 다소 진리를 담은 것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부패한 유생과 주술을 일삼는 무당 무리의 망탄허설(妄誕虛說)이 세속의 미신과 합쳐져서 인습속(因襲俗)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 미신이 성행할 때에 국법을 어기고 인명을 해치며, 인권을 유린하는 소위 민간치료와 같은 것, 또 미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금도 성행하여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유감스럽다. 미신의 폐해가 이처럼 심각한데 그 뿌리는 더욱 넓게 뻗어가고 있다. 이것을 오늘날 위생상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하나의 적국(敵國)의 모습이 아닐 수 없기에 예의주시하고 힘을 다해 미신을 각성시켜야 한다. 위생을 거론함에 있어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1915.10: 「緒言」)

그야말로 『조선위생풍습록』은 조선의 낙후되고 비위생적인 위생풍습을 계몽하고 식민권력의 미속(美俗)으로 교화하고자 편찬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조선위생풍습록』은 식민지 초기에 일본어로 출판되었으며, 조사 내용 그 자체로 조선인을 상대로 직접 계몽하고 생활풍속을 교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조선인의 위생풍속에 대한 직접적인 교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조선어를 병기하거나 적어도 각 항목에 대한 계몽의 지침이나 방법, 혹은 교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한 보고와 제안이 함께 기술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위생풍습록』은 당시 조선의 일상생활 속 위생풍습이나 의료민속에 관한 기초 자료를 일본어로 채록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위생풍습록』은 조선인에 대한 계몽과 교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식민통치 권력인 행정관료나 경찰 등을 비롯한 일본인 지식인, 재조일본인 등에 대해 조선의 위생풍습의 실태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에서의 생활에 대한 주의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식민통치의 합리화와 정당성의 공감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의 위생풍습과 민간치료를 미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계와 단속, 관리와 통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였다. 다만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조선인들에게는 원시적이고 전근대적인 위생풍속의 실태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미신타파에 대한 자발적 동기를 조장하는 작용도 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1915년 9월에 개최된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에서 미신에 관한 출품이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15년 3월 25일자 『매일신보』는 ‘미신이 위생상에 참고될 것이 많은 고로 금년 가을에 서울서 개최되는 시정오년기념공진회에 각 도에서 그 지방 미신을 조사 출품하면 대단한 참고 자료가 되겠기로 당국에서는 각 도에 그 조사를 명령하였다’고 보도하였다.(『매일신보』 1915.3.25.) 그리고 실제로 이 공진회에는 ‘무당의 복장 및 용구 십 수 점, 그리고 무당춤의 사진 여러 장’ 등 조선의 미신에 관한 물품이 전시되었다.(亥角仲藏 1915.10:73) 조선물산공진회가 조선총독부가 식민지조선의 근대화를 선전하기 위해 개최한 전시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근대적이고 비위생적이며 또한 비과학적인 조선의 미신에 관한 출품은 대외적으로 식민지배를 통한 계몽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근대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작용과 함께 식민권력의 단속과 통제의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선 내부의 미신타파에 대한 내재적 요구도 자극하는 효과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교과서 속의 미신 담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에서 교육을 통한 미신타파의 강조는 한일강제병합 이전부터 전개되었다. 1908년에 학부편찬으로 발행된 『보통학교 학도용 일어독본』(권8)에는 제11과와 제12과에 「기도와 약(祈禱と藥)」이라는 제목의 교재가 수록되어 있다.(學部編纂 1908:43-52) 교재의 내용은 눈병을 앓고 있는 무학(無學)의 사쿠헤이(作平)가 병의 치료에 평판이 좋은 스님을 찾아가서 눈병에 대해 상의를 한 결과, 극진한 기도와 함께 스님이 준 물을 눈에 바르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물도 눈에 발랐지만, 병은 낫지 않고 날로 악화하였다. 그 후 통증이 심해서 근처의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눈병이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교재에는 내용적으로는 미신의 폐해를 다루고 있지만, 이보다는 무학(無學)으로 인한 어리석음의 자각과 계몽이 주된 학습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⁸⁾ 그 후 이 교재는 1911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정정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권8)에도 그대로 재수록되어 활용되었다.(朝鮮總督府編纂 1911:43-52) 당시 조선의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일본의 교과서 교재가 그대로 수록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기도와 약」이라는 교재는 일본에서 계몽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교재가 조선에서도 그대로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학교 교육에서 미신타파를 목적으로 활용된 교재는 1916년에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보통학교 수신서 생도용』(권3)에 등장한다. 「제18과 미신을 피하자(迷信ヲ避ケヨウ)」라는 교재가 그것이다.(朝鮮總督府編纂 1916:36-38)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에 미신을 많이 믿는 노파가 눈병에 걸렸는데 어느 곳의 물을 눈에 바르면 낫는다는 말을 믿고 매일 눈에 물을 발랐지만 낫지 않자 주변의 친척이 의사에게 데려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치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회한다는 내용이다.

교재의 내용적인 면은 앞서 살펴본 교재 「기도와 약」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교재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신타파가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다.⁹⁾ 특히 이

8) 이점에 대해서는 본문의 「개화되지 않은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開けない国にわ、こんな人が多うございます。)」(p.51)는 표현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9) 이 교재의 목적에 대해서는 朝鮮總督府編纂(1916:106)에 「미신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재에 대한 교사용 단원에는 미신이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믿는 것(道理ニ合ワナイコトヲ信ズルノデアツテ)’이라는 설명과 함께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안된다(迷信ニ陥ラナイ様ニ導カナケレバナラス)’는 ‘주의’사항도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급속한 미신 배척은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제시하고 있다.(朝鮮總督府編纂 1916:106-110)

이와 유사한 교재는 1924년에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보통학교수신서 아동용』(권4)에도 등장한다. 「제12 미신에 빠지지 마라(迷信におちいるな)」라는 교재이다.(朝鮮總督府 1924:26-28)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에 미신을 많이 믿는 여성이 눈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무당이 준 물을 눈에 발라서 치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병세가 날로 악화되어 결국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되었다. 진찰 결과 오른쪽 눈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다른 쪽 눈만 수술을 해서 겨우 치료하게 되었다. 그 후 이 여성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도리에 어긋난 것을 믿고 오른쪽 눈을 잃게 된 것을 후회하며 미신의 무서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이다.

전체적인 교재의 내용이나 구성은 앞에서 살펴본 교재와 아주 흡사하다. 그런데 이 교재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먼저 이 교재에는 등장 인물에 미신을 잘 믿는 어리석은 조선인 여성과 대표적인 미신업자 무당, 그리고 일본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의사가 등장한다. 등장인물의 여성이 조선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교재의 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참조>10)

지극히 도식적일지는 모르지만, 내용적 구도는 근대적인 지식과 위생적인 의학을 겸비한 일본인 남성 의사가 어리석고 미신에 빠진 조선인 여성을 병과 미신으로부터 구제한다는 젠더적 위계와 함께 민족적 권력 위계를 동시에 묘출하고 있다.



<그림 1>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조선인 여성은

10) 것이 이 과(課)의 목적이다(迷信ヲ避クベクコトヲ教エルノガ、本課ノ目的デアル)고 명시되어 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후회하며 다른 사람에게 미신타파를 전파하고 계몽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구도는 식민권력의 통치 활동을 합리화하고 동시에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교육의 장(場)에서 우회적이지만 자연스럽게 이식하는 작용을 한 것이다.

제4장 식민통치 권력의 잡지 속 미신 담론

한일강제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에는 식민통치 권력의 필요와 재조일본인의 수요에 의해 다양한 잡지 미디어가 출현하였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총독부 정책의 홍보와 선전을 위한 기관지의 하나로 잡지를 발행하였다.¹¹⁾ 대표적인 잡지로는 1911년 6월에 『조선총독부월보(朝鮮總督府月報)』로 창간된 뒤 1915년 3월부터 『조선회보朝鮮彙報』로 개칭, 1920년 7월부터 다시 『조선(朝鮮)』으로 개칭된 월간지를 들 수 있다.¹²⁾ 또 1920년 7월부터는 조선어로 된 『조선문 조선(朝鮮文 朝鮮)』도 별도로 발행하여 기관지로서 활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위의 잡지 속에서 조선의 위생풍속과 미신에 관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다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회보』를 살펴보자. 『조선회보』 1915년 9월호는 「시정5년공진회기념호」로 발행되었는데 공진회에 대한 일반 개요를 비롯하여 조선에 관한 풍속, 행정, 무역, 교육, 재무금융, 교통, 산업, 사법, 경찰 및 위생 등 제반 분야의 현황과 보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미신에 관한 내용은 「위생상의 미신」이라는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 어느 국민이든 미신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특히 미신이 많다. 구시대 미신을 중시하거나 관혼상제의 어느 경우도 무당의 주문에 의해 운명을 정하는 식이다. 질병을 고치고 제

11) 조선총독부가 기관지로 발행한 신문으로는 일본어판 『경성일보(京城日報)』와 조선어판 『매일신보』가 대표적이다.

12) 월간지 『조선』은 원래 일본어로 발행되었는데 1917년부터 1934년까지는 『조선회보 지방호(朝鮮彙報 地方号)』와 『언문 조선(諺文 朝鮮)』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어로 발간되기도 하였다.(정근식 2011:3 참조)

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이와 같은 심리가 있다. 이들은 그 요언괴설(妖言怪說)을 신뢰하고 의료를 구원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의도(医道)를 발전시키지 않고 점점 미신이 세력을 떨치게 된다. (중략) 그러나 시대의 추이와 지도 독려의 결과는 그들로 하여금 점차 각성의 길로 인도하게 하고, 근래에는 뚜렷하게 교정 개선을 보기에 이르렀다.(조선총독부 1915.9:225)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인은 미신을 중시하고 의료를 구원하지 않는 관계로 의학을 발전시키지 않으며 미신의 세력이 더욱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 한편에 식민지 통치라는 신정을 통한 ‘지도 독려의 결과’로 조선인은 미신에 대해 스스로가 ‘각성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부분에서 교정과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선전하고 있다. 즉 미신담론은 조선의 전근대성과 비위생을 표상하는 동시에 식민지 지배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선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문 조선』에 등장하는 조선의 미신담론을 살펴보자. 『조선문 조선』에는 1920년대 중반부터 다수의 미신에 관한 기사들이 확인된다. 그중에 하나로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미신은 쉽게 말하면 시대의 진보를 방해하고, 시국을 불평시하며 일생을 비관시하는 악마이다. 그런 즉 우리는 이 미신을 근절함에 불가불노력(不可不努力)할지니, 이를 근절함에는 적극적 근절책과 소극적 근절책의 양자가 있으니, 전자를 이용함에는 (1) 진흥회나 혹은 풍속개량회를 조직하여 무당, 점쟁이 그 외 모든 술관(術官) 등을 엄금 혹은 책벌하며, (2) 경찰의 단속으로 미신의 서책과 미신인 등을 금할 것이다. 후자를 이용함에는 진력하여 시대의 교육을 베풀어 미신 대(對) 인류의 독해(毒害)를 자각하게 하거나, 혹은 신문잡지 및 그 외 선전문 등으로 미신을 적극 타파함에 있을 것이다.(裴相哲 1926.1:88-90)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배상철의 「미신근절론」이라는 기고문의 일부이다. 배상철은 미신이 ‘우매, 의혹, 허겁(虛劫), 몰상식, 무실힘’ 등에서 생겨난 것으로 ‘시대의 진보를 방해하고, 시국을 불평시하며 일생을 비관시하는 악마’라고 강한 논조로 역설하고 있다. 즉 미신을 조선의 전근대성과 미개함이 탄생시킨 것으로 식민 통치를 통한 근대화에 방해 요소이자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신타파는 필수적이며, 그 근절책으로 진흥회나 풍속개량회 등을 통한 통제와 교화, 그리고 경찰에 의한 단속과 처벌, 교육을 통한 자각, 신문잡지를 통한 계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배상철의 미신타파와 근절론은 조선인 스스로 식민통치 권력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동시에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마저 확보하게 하는 파급효과를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 내부의 민족적 분열과 열등감 조장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논리의 미신타파 담론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습적 미신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것을 소거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나, 그들로(인용자 주: 조선인) 하여금 미신으로 인하여 두려울 만한 범죄를 조성하는 것에 자각하도록 하여 폐해를 동반하는 미신은 타멸(打滅)하여 차차 단속을 하면 장래에 그 결과를 거두는 것은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崔鼎錫 1926.10:75)

1926년 10월호 『조선문 조선』에 발표된 최정석의 「朝鮮人の迷信」이라는 기고문의 일부이다. 여기에서도 미신은 단지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었으며 계몽을 비롯한 단속과 처벌이 미신타파에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에 대한 통제와 관리, 단속과 처벌을 미신타파라는 명분으로 용인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은 식민통치의 당위성으로 귀결되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¹³⁾

다음으로 잡지『조선』을 살펴보자. 잡지『조선』에는 특이하게도 전국의 13개도 경찰부 위생과에서 미신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수록하고 있다.¹⁴⁾ 이 조사의 대부분은 각 지역의 위생풍습, 민간

13) 그 외에 『조선문 조선』에 발표된 미신 관련 기사에는 吳正圭(1926.9), 吳正圭(1929.1), 吳正圭(1930.7)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4) 평안남도 위생과 「조선의 위생에 관한 미신(1)」(149호, 1927.10), 평안남도 위생과 「조선의 위생에 관한 미신(2)」(150호, 1927.11), 황해도 위생과 「질병치료에 관한 미신관행」(158호, 1928.7), 함경남도 위생과 「위생에 관한 풍습 및 미신요법」(165호, 1929.2), 경기도 위생과 「위생에 관한 풍습 및 미신요법」(166호, 1929.3), 경기도 위생과 「위생에 관한 풍습 및 미신요법」(167호, 1929.4), 충청북도 위생과 「위생에 관한 풍습 및 미신요법」(168호, 1929.5), 충청남도 위생과 「위생에 관한 풍습 및 미신요법」(169호, 1929.6), 전라남북도 위생과(제주도 포함) 「위생에 관한 풍습 및 미신요법」(170호, 1929.7), 경상남북도 위생과 「위생에 관한 풍습 및 미신요법」(171호, 1929.8), 강원도 위생과 「위생에 관한 풍습 및 미신요법」(172호, 1929.9), 평안북도·함경북도 위생과 「위생에

의료, 수술요법, 전통 의학 등에 관한 내용이다. 1927년 10월에 처음으로 수록된 평안남도 위생과의 기고문에는 이 조사에 대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최근 의학은 뚜렷하게 진보하고 그 설비도 또한 정비되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도시를 제외하면 아직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방이 적지 않다. 이러한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미신적 요법이 행해지고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 건강을 잃는 원인을 만들고, 불행하게 일생을 끝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조선인들의 미신적 행위 중에는 우매한 이론과 합치된 것들이 없지 않다. 그 대부분은 황당무계하여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위험을 참기 어려운 것 등이다. 이러한 것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위생상 각종의 시설과 함께 계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의 취지에 따라 평안남도 위생과에서 조사 취록한 위생에 관한 미신집(迷信集)은 위생사상의 향상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기에 본지에 게재하게 되었다.(편자)(평안남도 위생과 1927.10:108)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조사는 조선의 위생과 의료를 낙후성과 미개함, 그리고 미신적 행위와 결부된 것으로 규정하고 위생시설의 정비와 계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된 내용은 대부분 조선의 미개함과 비위생을 지적하는 채록 자료일 뿐 위생 설비나 의료시설의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등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 즉 이 조사는 조선인의 위생에 대한 계몽과 교화, 단속과 통제 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근거 자료로서의 기능을 한 것이다. 그리고 총독부를 비롯한 식민통치 권력은 물론 재조일본인과 본국의 일본인에게까지 식민통치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선전·확산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결론

식민지 초기 조선의 위생풍속에 대한 조사는 빈번하게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담론도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미신과 관련한 담론은 식민통치 권력의 정치적 필요와 조선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본국 혹은 조선 내의 수요에 부응하며 활발하게 구축되었다. 무엇보다 미신에 관한 담론은 조선에 대

관한 풍습 및 미신요법」(175호, 1929.12)

한 식민지 지배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데 유용한 소재로 활용되었으며,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와 위생화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신담론은 조선인을 계몽과 교화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문명적으로 열악하고 열등한 민족으로 치부하였다. 경찰이라는 국가권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미신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단속과 처벌을 중대한 직무과제로 삼았다. 또 위생풍속조사에서는 조선의 위생풍습과 민간치료를 미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계와 감시, 통제와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조선인의 민족적 열등감과 내부적 분열을 자극하는 작용도 하였다. 또 교육을 통한 미신타파가 강조되는 가운데 교과서에서는 조선인의 어리석음과 미개함을 미신의 폐해와 결부시켜 학교 교육의 교재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식민통치 권력의 기관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발산하고 선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초기에 식민통치 권력은 미신과 관련한 사건과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데 치중한 반면 일상생활 속 미신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질병으로 인한 미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시설의 마련이나 의료혜택의 확충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식민통치 권력은 미신과 관련한 위생풍속은 물론 조선의 전통 의학이나 민간 의료까지도 부정하거나 무시하였으며, 그와 함께 식민지 조선인의 사회적 경제적 고층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통치 권력의 미신에 대한 경계와 부정은 당시로써는 아주 심각한 자기모순을 표출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우리 모국인은 식민지에서 물질상의 개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으로 새롭게 얻어진 국민을 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논할 필요가 없다. (중략) 적극적으로 선인(鮮人)의 양지양능(良智良能)을 계발함과 동시에 소극적으로는 예부터 유래한 조선국민이 피폐의 일대 원인인 미신의 배척에 진력함에 있다. 반대로 지도의 책임이 있는 모국인 측을 보면 그 미신의 정도는 오히려 선민(鮮民) 보다도 맹렬함이 있다는 점에서는 실로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경성에서 일본인의 미신은 미신국민이라 칭해지는 조선인 이상으로 맹렬한 감이 있다. (중략) 이런 열등한

미신을 섬기는 하등동물을 행정, 사법의 관리로 사용하는 것은 메이지친황께서 내려주신 교육칙어에 아주 위배되는 처사이다. (중략) 나는 거듭 말한다. 모국인사(母國人士)가 스스로 미신을 없애고 양지양능을 계발하는 것은 선인(鮮人) 계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工藤忠輔 1914.7: 29-31)

이 기사는 당시의 일본어 종합잡지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에 기고된 미신 관련 기사이다¹⁵⁾.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은 조선인을 계몽하는 주체로서 조선의 미신을 타파하고 조선인의 양지양능(良智良能)을 계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모국인’으로 지칭된 재조일본인을 향해 강한 어조의 비난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예컨대 재조일본인의 미신의 정도가 조선인보다 맹렬하다든가, 재조일본인을 ‘열등한 미신을 섬기는 하등동물’로 칭하며 식민지 조선의 관리로서 부적합하다고 규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적은 당시의 식민통치 권력이 내세운 조선의 미신타파가 실상은 식민통치 권력의 내부에도 내재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실랄하게 비판한 것이며 동시에 자기모순을 노정하는 것이다.

식민통치 권력의 미신에 대한 자기모순은 1922년 10월호 『조선급만주』에 실린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一記者 1922.10:33)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주철도주식회사 사장(하야카와 센키치로(早川千吉郎))이 1922년 9월 30일에 평토편(奉天)의 소학교에서 훈시 중에 뇌익혈로 졸도하였는데 마침 그 무렵 만주에 와 있던 미우라 긴노스케(三浦謹之助) 박사¹⁶⁾를 비롯한 여러 의학박사들에게 진찰을 받았지만 경과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별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중역이 주술박사(易博士)라고 불리는 고다마 논슈(児玉呑舟)에게 진보를 발신하여 회복 여하를 문의하였더니 회복한다는 점괘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하야카와는 점차 의식을 회복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고다마의 주술력에 놀랐다는 내용을 평토편(奉天)에서 경성으로

15)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는 1908년 3월에 잡지 『조선(朝鮮)』으로 창간되었다가 1912년 1월(통권47호)에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로 개칭되어 1941년 1월(통권398호)까지 34년간 발행된 일본어 종합잡지이다.(임성모편 2007:6-12 참조)

16) 미우라 긴노스케(三浦謹之助, 1864~1950)는 1888년에 도쿄제국대학 의학 본과를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일본의 내과학, 생화학, 기생충학, 신경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한 의학박사이다. 또한 메이지친황을 비롯한 천황가의 진료도 담당한 의사로 유명하다.

들어온 경성철도관리국장 구보 요조(久保要藏)를 통해 전달한 내용이다.

기사는 주술의 신비스러움을 맹신하면 미신에 빠진다고 경계를 나타내면서도 과학을 전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구보 요조 경성관리국장의 전언을 소개하며 마무리되었다.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사는 당시 천황가(天皇家)를 진료할 만큼 최고의 의학박사로 알려진 미우라 긴노스케의 의술과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술을 내세운 주술박사 고다마 논슈를 상대화함으로써 근대와 전근대, 과학과 미신, 문명과 미개가 착종하는 당시 식민통치 권력의 실태를 묘출하고 있다. 즉 문명과 과학, 위생과 근대를 지향하는 식민통치 권력이 실상은 미개와 주술, 미신과 전근대를 상호의존적인 관점에서 수용한 일종의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점은 조선의 미신과 위생풍속에 대한 당시 식민통치 권력의 통제와 규제가 태생적으로 굴절된 위생 논리에 의한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주영하·임경택·남근우(2017) 『제국일본이 그린 조선민속』,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p.68-71.
- 이충호(2014) 「식민지 일본어잡지 속의 <미신>—『경무회보』의 <미신>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제29집, pp.303-330.
- 한지원(2013) 『조선총독부 의료민속지를 통해 본 위생풍습 연구』, 민속원, pp.1-176.
- _____ (2013) 「1920년대 경무국 위생과 조사보고서를 통해 본 의료민속 연구」 『역사민속학』, 제4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pp.169-211.
- 이형식(2012)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위생정책과 조선사회」 『한림일본학』, 20,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5-28.
- 정근식(2011) 「식민지 위생경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유산-식민지 통치성의 시각에서」 『사회와 역사』, 제90집, 한국사회사학회, pp.221-270.
- 임성모 편(2007) 『조선과 만주 총목차·색인 및 해제』, 어문학사, pp.6-12.
- 이방원(2006) 「일제하 미신에 대한 통제와 일상생활의 변화」 『동양고전연구』, 24, 동양고전학회, pp.281-314.
- 김혜숙(2006) 「이마무라 도모의 조선풍속 연구와 제조일본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75-122.
- 장신(2004) 「경찰제도의 확립과 식민지 국가권력의 일상 침투」 연세대학교학연구원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일상 생활』, 해안, p.562.
- 박윤재(2002) 『한말·일제 초 근대적 의학체계의 형성과 식민 지배』, 연세대학교대학원 박

- 사학위논문, pp215-245.
- 최길성(1974) 「미신타파에 대한 일고찰」『한국민속학』, 민속학회, pp37-54.
- 吳正圭(1930) 「지방에 유행하는 전설 및 미신」『조선문 조선』, 조선총독부, 7월호, pp.103-104.
- 吳正圭(1929) 「조선인 체육에 대한 미신」『조선문 조선』, 조선총독부, 1월호, pp.126-127.
- 宮内彩希(2012) 「韓国併合前後における「迷信」概念の形成と統治権力の対応」『日本植民地研究』, 24, pp.1-19.
- 大日方純夫(1992) 「日本近代国家の成立と警察」, 校倉書房, p.184.
- 平安南道衛生課(1927) 「朝鮮の衛生に関する迷信(1)」『朝鮮』, 조선총독부, 149, p.108.
- 裴相哲(1926) 「迷信根絶論」『조선문 조선』, 조선총독부, 1월호, pp.88-90.
- 吳正圭(1926) 「朝鮮副業에 関한 迷信並伝説」『조선문 조선』, 조선총독부, 9월호, p.69.
- 崔鼎錫(1926) 「朝鮮人の 迷信」『조선문 조선』, 조선총독부, 10월호, p.75.
- 吉浦礼三(1925) 「病氣に関する奇拔な朝鮮の迷信」『朝鮮及滿州』, 218, 朝鮮及滿州社, p.100.
- 綿引朝光(1925) 「疾病と迷信」『朝鮮及滿州』, 255, 朝鮮及滿州社, pp.45-46.
- 警務局池内生(1925) 「迷信打破と警察官」『警務彙報』, 229, pp.61-62.
- 朝鮮總督府(1924) 『普通学校修身書 兒童用』, 卷四, pp.26-28.
- 浜口良光(1924) 「朝鮮の迷信について」『朝鮮及滿州』, 204, 朝鮮及滿州社, p.57.
- 京畿道警察部(1922) 「赤痢と迷信」『警務彙報』, 210, pp.62-63.
- 一記者(1922) 「医者か易者か」『朝鮮及滿州』, 179, 朝鮮及滿州社, p.33.
- 全南警察部(1921) 「疾病と迷信」『警務彙報』, 195-198号.
- 朝鮮總督府警務局(1920) 「朝鮮における迷信犯罪」『警務彙報』, 179, p.35.
- 今村軻(1919) 『朝鮮風俗集』, (訂正 3版)ウツボヤ書籍店, 広告.
- 朝鮮總督府編纂(1916) 『普通学校修身書 教師用』, 卷三, pp.106-110.
-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1915) 『朝鮮衛生風習録』, 日韓印刷株式会社, pp.1-221.
- 朝鮮總督府(1915) 『朝鮮彙報』, (9), p.225.
- 玄角仲藏(1915) 「一万四千方哩の治安を保持する警察機関」『朝鮮公論』, 10月号, p.73.
- 工藤忠輔(1914) 「在鮮母国人の迷信を排斥す」『朝鮮及滿州』, 7月号, pp.29-31.
- 今村軻(1914) 『朝鮮風俗集』, 斯道館, pp.1-459.
- 平安南道警務部編纂(1913) 『衛生警察講義一斑』, 平安南道警務部, p.85.
- 橋本末実(1913) 『朝鮮の迷信と俗伝』, 新文社, pp.1-2.
- 朝鮮總督府(1913) 『普通学校学徒用 国語読本』, 卷八, pp.43-52.
-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事務分掌規程中改正」(1912.3.28)朝鮮總督府訓令 第18号, 『朝鮮總督府官報』号外.
- 山道襄一(1911) 『朝鮮半島』, 日韓書房, pp.263.
- 韓国内部警務局(1910) 『韓国警察一斑』, 日韓印刷株式会社, pp.232-243.
-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1910.10.1) 朝鮮總督府訓令 第2号, 『朝鮮總督府官報』 第29号.
- 学部編纂(1908) 『普通学校学徒用 日語読本』, 卷八, 大倉書店, pp.43-52.
- 山口謙二郎(1901) 『衛生警察学』, 明治大学出版部, p.5.

『每日申報』(1915.3.25.) 「공진회와 미신」

『每日申報』(1911.1.8.) 「清潔과 人的 價值」

『每日申報』(1910.10.7.) 「衛生과 修身」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5』, 「조선총독부령 제40호 1912. 3.25. 관보 제470호」(<http://db.history.go.kr/item/>, 2020.04.20. 검색)

DOI : 10.18075/jcs..75.202007.073

■ Abstract

The duality of colonial power over the sanitary customs of Korea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Focusing on superstitious discourse

Hwang Ikkoo

During the early colonial period, surveys on the sanitary customs of Korea were conducted frequently, and various discourse was also formed. In particular, the discourse on superstitions was used as a useful material to promote and spread the legitimacy of colonial rule over Korea.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timulating the need for modernization and sanitation of the colonial Korea. In the process, the national power of police strengthened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superstitions in the name of the people's health and safety, and made the crackdown and punishment a major task. In addition, the sanitary customs survey stipulated that Korea sanitary customs and folk medicine were derived from superstition, and emphasized the need for control and crackdown. With the emphasis on superstitious defeat, textbooks included teaching materials that linked the folly of the Korean people to the evil of superstition. And the organ of colonial power radiated, propagated and continuously reproduced this discourse.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olonial power, which was oriented to civilization, science, hygiene, and modernity, in fact revealed a self-contradiction that accepted magic and superstition from an interdependent perspective.

Key words : colonial Korea, colonial power, sanitary customs, superstitious discourse.

■ 日本語抄録

植民地初期における朝鮮の衛生風俗に対する植民権力の言説と様相 - 迷信言説を中心に -

黄 益九

植民地初期における朝鮮の衛生風俗に対する調査は盛んに行われていた。それに相まって関連する多様な言説も作られていた。特に迷信に関する言説は、朝鮮に対する植民地支配の当為性と正当性を助長して拡散するのに有用な素材として活用され、植民地朝鮮の近代化と衛生化の必要性を刺激する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この過程のなかで、警察という国家権力は国民の健康と安全という名分の下に迷信に対する統制を強化し、取締りと処罰を重大な職務として定めていた。また衛生風俗の調査では、朝鮮の衛生風俗と民間治療は迷信から由来したものと規定されて警戒と統制、そして取締りの必要性が強調された。また迷信打破が強調されるなか、教科書には朝鮮人の愚かさや未開を迷信の弊害と結びつけた教材が収録された。さらに植民権力の機関紙は、このような言説を伝播し、宣伝していた。そして再生産も行われていた。しかし文明と科学、衛生と近代を志向していた植民権力も実際には呪術と迷信を相互依存的な観点から受容する自己矛盾を露呈していたことは注目に値する。

キーワード：植民地朝鮮、植民権力、衛生風俗、迷信、言説

<필자인적사항>

성 명: 황익구

소속(직위): 청암대학교 제일코리안연구소 연구교수

연락처(이메일): younrok@hanmail.net

투고마감일: 2020.4.30

심사개시일: 2020.5.15

게재확정일: 2020.6.15